

# 가족기능의 변화 양상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차이

연은모<sup>1</sup>, 최효식<sup>2\*</sup>

<sup>1</sup>영남대학교 교양학부, <sup>2</sup>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 Trajectory of Family Functioning: Self-esteem and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Eun Mo Yeon<sup>1</sup>, Hyo-Sik Choi<sup>2\*</sup>

<sup>1</sup>College of Basic Studies, Yeungnam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기능(유연성, 응집성)이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확인하고, 변화 양상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잠재계층 확인을 위해 3개 시점의 자료(2013년, 2014년, 2016년),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 차이 검증을 위해 5개년도 자료(2013년-2017년)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1,348명이다. 분석 결과, 첫째, 잠재계층성장분석을 적용했을 때 유연성은 저수준 증가형 집단, 중수준 증가형 집단, 중상수준 증가형 집단, 상수준 무변화형 집단, 응집성은 저수준 증가형 집단, 중수준 증가형 집단, 감소형 집단, 상수준 증가형 집단, 최상수준 무변화형 집단이 확인되었다. 둘째, 초등학령기에 해당하는 2015년(초1), 2016년(초2), 2017년(초3) 모두 유연성, 응집성의 잠재계층에 따라 자아존중감 수준에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대체로 유연성은 상수준 무변화형 집단, 응집성은 최상수준 무변화형 집단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유아기에 해당하는 2013년, 2014년, 초등학령기에 해당하는 2015년(초1), 2017년(초3) 모두 유연성, 응집성의 잠재계층에 따라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에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유연성은 저수준 증가형 집단, 중수준 증가형 집단, 응집성은 저수준 증가형 집단, 중수준 증가형 집단, 감소형 집단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잘 기능하는 가족 시스템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had two aims (1) to explore the trajectory of family functioning (flexibility and cohesion) in the mothers' perspective and classify it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ir child, and (2)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children's self-esteem as well the internal and external behavioral problems based on the latent groups. A total of 1,348 mothers and their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in 2013 through to 2017 were analyzed. The group was subdivided into low incremental, average incremental, average-above incremental, and high unchanged groups according to the flexibility, and into low incremental, average incremental, decremental, high incremental, and above-high unchanged groups in terms of cohesion. From 2015 to 2017, the self-esteem of elementary school-age children showed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flexibility and cohesion of family functioning; children in the high-unchanged group of flexibility and the above-high unchanged group of cohesion showed high self-esteem. Behavior problems of early childhood and elementary school-age children varied according to the latent classes of flexibility and the cohesion of family functioning. Children in low incremental and average incremental groups of flexibility and low incremental, average incremental, and decremental groups of cohesion showed more internal and external behavioral problem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amily functioning has significant effects on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children.

**Keywords** : Family Functioning, Flexibility, Cohesion, Self-Esteem, Behavior Problems,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 Hyo-Sik Choi(Chuncheon National Univ. of Education)

email: s970218@cnu.ac.kr

Received April 20, 2020

Accepted October 5, 2020

Revised May 18, 2020

Published October 31, 2020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가족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환경이며[1], 건강한 가족기능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5]. 그동안 선행연구들은 가족기능이 부모의 양육 특성 및 자녀의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환경 변인은 무엇인지 탐색해 오고 있는데, 몇 가지 측면에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선행연구들은 대다수 횡단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족기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변화 특성이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가족기능의 변화 양상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가족기능이 중단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변화 양상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의 자아존중감,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시스템이론에 따르면 가족은 서로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개인의 단순 집단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시스템이며, 가족시스템의 한 부분의 변화는 연관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6]. 가족시스템이론에 기초했을 때 개인은 가족 상호 간의 관계에 기초하여 이해될 수 있으며, 가족 상호 간 관계의 질을 의미하는 가족기능이 중요하다.

가족기능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 중의 하나인 가족체계의 순환모형(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에 따르면 균형적인 가족은 그렇지 못한 가족에 비해 더 행복하고, 더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의 응집성과 유연성을 더 효과적으로 변화시킨다. 가족체계의 순환모형은 잘 기능하는 조화로운 가족의 특징을 응집성, 유연성, 의사소통의 세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응집성(Cohesion)은 가족 구성원 상호 간에 얼마나 정서적 결합이 되어있는지를 의미한다. 유연성(Flexibility)은 발달 단계 및 상황적 맥락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여 가족리더십, 역할 관계, 관계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가족 시스템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다양한 상황적 요구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가족의 응집성과 유연성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한다[7]. 즉, 균형적인 가족은 안정성 측면의 응집성, 변화 측면의 유연성이 조화롭게 작동

하며, 가족의 의사소통이 응집성, 유연성의 조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경험적 연구들은 가족기능이 초등학교의 문제행동, 외로움, 자아탄력성, 스마트폰 중독, 우울, 불안, 유아의 자기조절력, 창의성, 사회적 유능감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4, 8-14].

가족 환경의 응집성과 유연성 수준은 자녀의 심리적 적응과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중요 변인이다. 가족기능은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4, 15-16]. 개인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달하는데,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를 의미하는 자아존중감 또한 환경(사회, 가족,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17 재인용]. 따뜻하고, 정서적으로 결속된 가족 환경을 지각하는 것은 긍정적 자기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18].

또한, 가족기능은 자녀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8, 19-21].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연구들은[8, 20] 가족기능이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아탄력성 및 미디어기기중독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건강한 가족기능이 작동할 때 가족 간 유대감, 건설적 문제해결, 개방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자녀의 스트레스, 고민 등에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1.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기능(유연성, 응집성)이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확인하고, 변화 양상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어머니가 지각한 유연성, 응집성의 가족기능은 각각 변화 양상에 따라 몇 개의 잠재계층이 존재하는가?
- 2) 확인된 유연성, 응집성의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의 자아존중감,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 대상

한국아동패널의 6차(2013년), 7차(2014년), 8차(2015년), 9차(2016년), 10차(2017년) 자료를 사용하였

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22]. 본 연구에서 가족기능은 데이터가 있는 6차(2013년), 7차(2014년), 9차(2016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가족기능의 응답 자료가 3년 동안 모두 있는 1,348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 2.2 연구 도구

### 2.2.1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기능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기능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 아동패널 6차(2013년), 7차(2014년), 9차(2016년) 자료의 가족 상호작용(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V)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응집성 7 문항, 유연성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응집성 '우리 가족은 친밀하면서도 개별적인 균형감을 유지하고 있다.', 유연성 '우리 가족은 문제가 생길 때 서로 절충하고 타협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2].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6차 유연성  $\alpha=.82$ , 응집성  $\alpha=.89$ , 7차 유연성  $\alpha=.81$ , 응집성  $\alpha=.87$ , 9차 유연성  $\alpha=.79$ , 응집성  $\alpha=.86$ 이다.

### 2.2.2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녀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 8차(2015년), 9차(2016년), 10차(2017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녀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이)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2].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8차  $\alpha=.76$ , 9차  $\alpha=.75$ , 10차  $\alpha=.76$ 이다.

### 2.2.3 자녀의 문제행동

자녀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 6차(2013년), 7차(2014년), 8차(2015년), 10차(2017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6차(2013년), 7차(2014년) 자료는 유아행동평가척도(CBCL 1.5-5)를 사용했으며, 내재화 문제행동은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은 주의집중 문제, 공격행동으로 하위요인이 구성되어 있다. 8차(2015년), 10차(2017년) 자료는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BCL 6-18)를 사용했으며, 내재화 문제행동은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은 규칙위

반, 공격행동으로 하위요인이 구성되어 있다[22].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화 점수(T점수)를 활용하였다.

## 2.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한국아동패널(<http://panel.kicce.re.kr>) 자료실(원시 자료)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하였으며, Mplus 8.3,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첫째, 응집성과 유연성의 가족기능의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계층을 탐색하기 위해 잠재계층성장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을 하였다. 확인된 가족기능의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재계층 분석의 3단계 접근방법 중 BCH 방법(BCH method)을 활용하였다[23]. 결측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인 어머니와 자녀의 특징을 6차(2013년) 자료에 기초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월령은 60개월 53명(3.9%), 61개월 246명(18.2%), 62개월 345명(25.6%), 63개월 391명(29.0%), 64개월 213명(15.8%), 65개월 79명(5.9%), 66개월 21명(1.6%)이며, 성별은 남아 688명(51.0%), 여아 660명(49.0%)이다. 어머니의 연령은 20대 35명(2.6%), 30대 1,096명(81.3%), 40대 207명(15.4%), 50대 5명(4%), 무응답 5명(4%), 학력은 중졸 5명(4%), 고졸 384명(28.5%), 전문대졸 389명(28.9%), 대졸 496명(36.8%), 대학원졸 66명(4.9%), 무응답 8명(6%)이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348)			
Variables	Category	N	%
child's age (months)	60.0	53	3.9
	61.0	246	18.2
	62.0	345	25.6
	63.0	391	29.0
	64.0	213	15.8
	65.0	79	5.9
	66.0	21	1.6

Child's gender	Male	688	51.0
	Female	660	49.0
Mothers' age (yr)	24-29	35	2.6
	30-39	1,096	81.3
	40-49	207	15.4
	50-53	5	.4
	No response	5	.4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d	5	.4
	High school graduated	384	28.5
	Community college graduated	389	28.9
	University graduated	496	36.8
	Graduate school graduated	66	4.9
	No response	8	.6

### 3.2 가족기능 변화 패턴

6차(2013년), 7차(2014년), 9차(2016년)의 3개년도 자료에 기초한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기능의 유연성, 응집성의 변화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무변화 모형과 선형 변화모형을 비교하였다. Table 2에 제시된 것처럼 모형 적합도를 고려했을 때 유연성과 응집성 모두 무변화 모형보다 선형 변화모형이 더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선형 변화모형에 기초하여 잠재계층을 확인하였다.

유연성에 대한 잠재계층성장분석 결과(Table 3 참조), 모형 적합도, 집단별 사례수의 비율, 해석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24] 4계층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집성에 대한 잠재계층성장분석 결과(Table 4 참조), 5계층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연성의 4개 잠재계층의 특징을 살펴보면, 계층1은 전체의 6.3%인 85명이 포함되었으며, 초기값 2.362(p<.001), 선형변화율 .170(p<.05)이다. 계층1은 4개 잠재계층 중 계속해서 가장 낮은 유연성을 보이지만, 세 시점 동안 증가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저수준 증가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계층2는 전체의 30.9%인 416명이 포함되었으며, 초기값 3.233(p<.001), 선형변화율 .037(p<.05)이다. 계층2는 4개 잠재계층 중 계속해서 두 번째로 낮은 유연성을 보이지만, 증가폭이 크지는 않지만 세 시점 동안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며, 5점 척도의 3점 이상의 점수를 보이기 때문에 '중수준 증가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계층

3은 전체의 56.0%인 755명이 포함되었으며, 초기값 3.779(p<.001), 선형변화율 .040(p<.001)이다. 계층3은 4개 잠재계층 중 계속해서 두 번째로 높은 유연성을 보이면서 증가폭이 크지는 않지만 세 시점 동안 증가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중상수준 증가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계층4는 전체의 6.8%인 92명이 포함되었으며, 초기값 4.404(p<.001), 선형변화율 .009(p>.05)이다. 계층4는 4개 잠재계층 중 계속해서 가장 높은 유연성을 보이면서 세 시점 동안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수준 무변화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응집성의 5개 잠재계층의 특징을 살펴보면, 계층1은 전체의 3.0%인 40명이 포함되었으며, 초기값 2.118(p<.001), 선형변화율 .531(p<.001)이다. 계층1은 5개 잠재계층 중 계속해서 낮은 응집성의 경향성을 보이지만, 세 시점 동안 증가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저수준 증가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계층2는 전체의 7.9%인 106명이 포함되었으며, 초기값 3.225(p<.001), 선형변화율 .255(p<.001)이다. 계층2는 5개 잠재계층 중 초기값은 두 번째로 낮은 점수, 두 번째와 세 번째 시점에서는 세 번째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세 시점 동안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며, 5점 척도의 3점 이상의 점수를 보이기 때문에 '중수준 증가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계층3은 전체의 5.0%인 68명이 포함되었으며, 초기값 3.484(p<.001), 선형변화율 -.271(p<.001)이다. 계층3은 세 시점 동안 감소하는 추세가 있으며, 마지막 시점에서 가장 낮은 응집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감소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계층4는 전체의 67.1%인 904명이 포함되었으며, 초기값 3.973(p<.001), 선형변화율 .037(p<.001)이다. 계층4는 5개 잠재계층 중 계속해서 두 번째로 높은 응집성을 보이면서 세 시점 동안 증가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상수준 증가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계층5는 전체의 17.1%인 230명이 포함되었으며, 초기값은 4.633(p<.001), 선형변화율 -.037(p>.05)이다. 계층5는 5개 잠재계층 중 계속해서 가장 높은 응집성을 보이면서 세 시점 동안 변화가 없기 때문에 '최상수준 무변화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Table 2. Information for model selection

Model	χ <sup>2</sup>	df	CFI	TLI	RMSEA	SRMR	Mean	
							Intercept	Linear
Flexibility	No growth	58.983***	4	.960	.970	.101(.079-.125)	.125	3.611***
	Linear	10.098**	1	.993	.980	.082(.042-.131)	.017	3.567* .045**
Cohesion	No growth	85.484***	4	.941	.956	.123(.101-.146)	.224	3.985*
	Linear	11.762***	1	.992	.977	.089(.049-.138)	.017	3.944* .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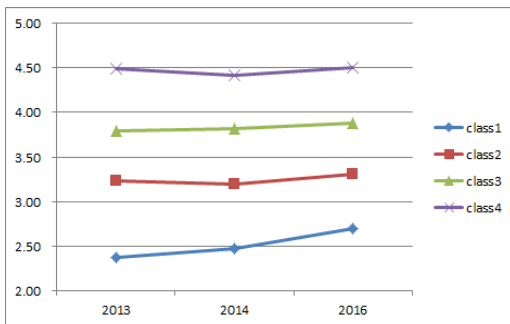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Table 3. Fit indices for unconditional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models with one to five classes (Flexibility)

Model	AIC	BIC	SABIC	Entropy	LMR(p)	BLRT(p)	Class proportions					
							1	2	3	4	5	
1	6865.805	6891.837	6875.954	N/A	N/A	N/A	100					
2	5962.975	6004.626	5979.214	.758	.0000	.0000	26.5	73.5				
3	5651.405	5708.675	5673.733	.733	.0219	.0000	7.5	44.7	47.8			
4	5479.264	5552.153	5507.681	.775	.0014	.0000	30.9	6.8	56.0	6.3		
5	5437.548	5526.057	5472.055	.779	.2320	.0000	4.5	33.3	3.2	6.8	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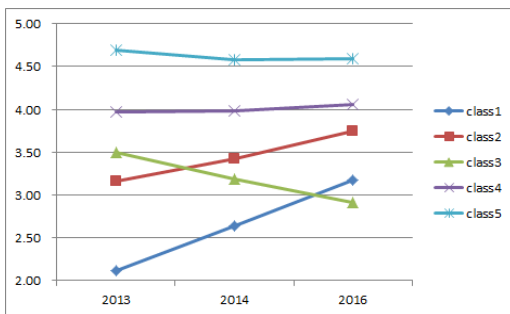
Table 4. Fit indices for unconditional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models with one to six classes (Cohesion)

Model	AIC	BIC	SABIC	Entropy	LMR(p)	BLRT(p)	Class proportions						
							1	2	3	4	5	6	
1	6546.685	6572.717	6556.834	N/A	N/A	N/A	100						
2	5642.695	5684.346	5658.934	.898	.0000	.0000	12.8	87.2					
3	5197.712	5254.983	5220.040	.826	.0003	.0000	10.2	18.6	71.1				
4	4943.640	5016.530	4972.058	.861	.0243	.0000	16.8	68.4	11.9	2.8			
5	4867.989	4956.498	4902.496	.864	.0034	.0000	7.9	5.0	3.0	67.1	17.1		
6	4813.834	4917.962	4854.430	.875	.3874	.0000	2.3	4.5	67.0	8.5	.7	17.1	



\* Flexibility Class 1: low incremental group, Class 2: average incremental group, Class 3: average-above incremental group, Class 4: high unchanged group

Fig. 1. Profile plot of 4-class models (Flexibility)



\* Cohesion Class 1: low incremental group, Class 2: average incremental group, Class 3: decremental group, Class 4: high incremental group, Class 5: above-high unchanged group

Fig. 2. Profile plot of 5-class models (Cohesion)

Table 5. Parameter estimates for latent classes

Latent classes		Estimate(S.E.)	
		Intercept	Linear
Flexibility	1	2.362***(.105)	.170*(.084)
	2	3.233***(.038)	.037*(.018)
	3	3.779***(.024)	.040***(.009)
	4	4.404***(.068)	.009(.039)
Cohesion	1	2.118***(.095)	.531***(.077)
	2	3.225***(.068)	.255***(.058)
	3	3.484***(.080)	-.271***(.076)
	4	3.973***(.012)	.037***(.008)
	5	4.633***(.037)	-.037(.032)

\* p<.05, \*\* p<.01, \*\*\* p<.001

유연성의 잠재계층과 응집성의 잠재계층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첫째, 유연성의 저수준 증가형 집단(85명, 6.3%)은 응집성의 저수준 증가형 집단(32명, 37.6%), 중수준 증가형 집단(22명, 25.9%), 감소형 집단(26명, 30.6%), 상수준 증가형 집단(5명, 5.9%), 최상수준 무변화형 집단(0명, 0%)으로 포함되었다. 둘째, 유연성의 중수준 증가형 집단(416명, 30.9%)은 응집성의 저수준 증가형 집단(8명, 1.9%), 중수준 증가형 집단(70명, 16.8%), 감소형 집단(41명, 9.9%), 상수준 증가형 집단

(292명, 70.2%), 최상수준 무변화형 집단(5명, 1.2%)으로 포함되었다. 셋째, 유연성의 중상수준 증가형 집단(755명, 56.0%)은 응집성의 저수준 증가형 집단(0명, 0%), 중수준 증가형 집단(14명, 1.9%), 감소형 집단(1명, .1%), 상수준 증가형 집단(599명, 79.3%), 최상수준 무변화형 집단(141명, 18.7%)으로 포함되었다. 넷째, 유연성의 상수준 무변화형 집단(6.8%인 92명)은 응집성의 저수준 증가형 집단(0명, 0%), 중수준 증가형 집단(0명, 0%), 감소형 집단(0명, 0%), 상수준 증가형 집단(8명, 8.7%), 최상수준 무변화형 집단(84명, 91.3%)으로 포함되었다.

### 3.3 잠재계층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차이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기능인 유연성, 응집성의 잠재계층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차이를 검증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2015년(초1), 2016년(초2), 2017년(초3) 모두 유연성, 응집성의 잠재계층에 따라 자아존중감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성은 대체로 잠재계층4 집단이 잠재계층1, 잠재계층2 집단보다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집성은 세 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잠재계층5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3.4 잠재계층에 따른 문제행동 차이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기능인 유연성, 응집성의 잠재계층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 차이를 검증하였다. 유아기에 해당하는 2013년, 2014년,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2015년(초1), 2017년(초3) 모두 유연성, 응집성의 잠재계층에 따라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성은 잠재계층1, 잠재계층2 집단이 잠재계층3, 잠재계층4 집단보다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집성은 대체로 잠재계층1, 잠재계층2, 잠재계층3 집단이 잠재계층4, 잠재계층5 집단보다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논의

가족환경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족기능은 가족환경의 특성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기능(유연성, 응집성)이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확인하고, 변화 양상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연구문제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6. Equality tests of means across classes using the BCH procedure for self-esteem

Variables	Latent Classes	M	S.E.	Overall test $\chi^2$ (Significant pairwise comparisons)	Latent Classes	M	S.E.	Overall test $\chi^2$ (Significant pairwise comparisons)		
Self-esteem 2015	Flexibility	Class1	3.32	.06	31.161*** (1,2<3,4)	Cohesion	Class1	3.26	.10	14.524** (1,2,3,4<5)
		Class2	3.35	.03			Class2	3.39	.07	
		Class3	3.49	.02			Class3	3.34	.08	
		Class4	3.61	.06			Class4	3.44	.02	
		Class5	3.61	.06			Class5	3.53	.03	
Self-esteem 2016	Flexibility	Class1	3.40	.06	29.403*** (1,2,3<4)	Cohesion	Class1	3.35	.09	16.659** (1,2,4<5)
		Class2	3.40	.03			Class2	3.39	.05	
		Class3	3.47	.02			Class3	3.42	.07	
		Class4	3.69	.05			Class4	3.45	.02	
		Class5	3.69	.05			Class5	3.57	.03	
Self-esteem 2017	Flexibility	Class1	3.37	.07	26.013*** (1,2,3<4; 2<3)	Cohesion	Class1	3.40	.07	32.466*** (1,2,3,4<5; 3<2,4)
		Class2	3.41	.03			Class2	3.47	.06	
		Class3	3.50	.02			Class3	3.25	.08	
		Class4	3.65	.05			Class4	3.46	.02	
		Class5	3.65	.05			Class5	3.61	.03	

※ Flexibility Class 1: low incremental group, Class 2: average incremental group, Class 3: average-above incremental group, Class 4: high unchanged group; Cohesion Class 1: low incremental group, Class 2: average incremental group, Class 3: decremental group, Class 4: high incremental group, Class 5: above-high unchanged group

\* p<.05, \*\* p<.01, \*\*\* p<.001

Table 7. Equality tests of means across classes using the BCH procedure for behavior problems

Variables	Latent Classes	M	S.E.	Overall test $\chi^2$ (Significant pairwise comparisons)	Latent Classes	M	S.E.	Overall test $\chi^2$ (Significant pairwise comparisons)	
Internalizing problems 2013	Flexibility	Class1	52.68	1.35	57.958*** (4<3(1,2))	Cohesion	Class1	51.69	1.82
		Class2	50.30	.58			Class2	52.05	1.27
		Class3	47.19	.40			Class3	50.21	1.61
		Class4	42.69	1.13			Class4	48.23	.35
		Class5	44.94	.63			Class5	44.94	.63
Externalizing problems 2013	Flexibility	Class1	52.47	1.30	105.974*** (4<3(1,2))	Cohesion	Class1	51.70	2.01
		Class2	49.93	.55			Class2	50.40	1.28
		Class3	45.75	.38			Class3	50.59	1.50
		Class4	40.22	1.03			Class4	47.18	.33
		Class5	43.27	.63			Class5	43.27	.63
Internalizing problems 2014	Flexibility	Class1	52.51	1.23	94.442*** (4<3(1,2))	Cohesion	Class1	52.03	1.79
		Class2	49.98	.59			Class2	51.14	1.38
		Class3	45.37	.39			Class3	49.79	1.57
		Class4	41.38	1.10			Class4	46.96	.34
		Class5	43.30	.65			Class5	43.30	.65
Externalizing problems 2014	Flexibility	Class1	51.03	1.17	114.905*** (4<3(1,2))	Cohesion	Class1	52.09	1.77
		Class2	49.02	.57			Class2	48.82	1.27
		Class3	44.06	.37			Class3	49.76	1.59
		Class4	39.63	1.01			Class4	45.85	.33
		Class5	41.58	.63			Class5	41.58	.63
Internalizing problems 2015	Flexibility	Class1	53.51	1.01	66.034*** (4<3(1,2))	Cohesion	Class1	54.45	1.55
		Class2	51.73	.53			Class2	52.35	1.05
		Class3	48.66	.37			Class3	52.80	1.35
		Class4	45.23	.90			Class4	49.53	.32
		Class5	47.26	.56			Class5	47.26	.56
Externalizing problems 2015	Flexibility	Class1	56.28	.98	78.909*** (4<3<2(1))	Cohesion	Class1	56.36	1.34
		Class2	52.64	.55			Class2	53.14	1.12
		Class3	49.97	.37			Class3	54.11	1.54
		Class4	46.25	.91			Class4	50.97	.32
		Class5	47.97	.56			Class5	47.97	.56
Internalizing problems 2017	Flexibility	Class1	51.34	1.21	24.726*** (3,4(1,2))	Cohesion	Class1	50.64	1.52
		Class2	50.23	.56			Class2	51.40	1.22
		Class3	47.68	.40			Class3	51.33	1.52
		Class4	46.07	1.16			Class4	48.52	.34
		Class5	46.50	.62			Class5	46.50	.62
Externalizing problems 2017	Flexibility	Class1	52.51	1.27	31.668*** (3,4(1,2))	Cohesion	Class1	51.64	1.85
		Class2	50.79	.56			Class2	51.19	1.22
		Class3	47.93	.38			Class3	52.20	1.45
		Class4	46.28	1.24			Class4	48.97	.33
		Class5	46.79	.66			Class5	46.79	.66

※ Flexibility Class 1: low incremental group, Class 2: average incremental group, Class 3: average-above incremental group, Class 4: high unchanged group; Cohesion Class 1: low incremental group, Class 2: average incremental group, Class 3: decremental group, Class 4: high incremental group, Class 5: above-high unchanged group

\* p<.05, \*\* p<.01, \*\*\* p<.001

첫째, 자녀가 만 5세, 만 6세, 만 8세가 되는 세 시점 동안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기능의 변화궤적에 존재하는 잠재계층을 확인하기 위해 선형변화모형에 기초한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하였으며, 유연성은 4개 잠재계층, 응집성은 5개 잠재계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된 유연성의 4개 잠재계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계층1은 '저수준 증가형 집단(85명, 6.3%)'으로, 계속해

서 가장 낮은 유연성을 보이지만, 세 시점 동안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 특징이 있다. 계층2는 '저수준 증가형 집단(416명, 30.9%)'으로, 계속해서 두 번째로 낮은 유연성을 보이지만, 증가폭이 크지는 않지만 세 시점 동안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며, 5점 척도의 3점 이상의 점수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계층3은 '중상수준 증가형 집단(755명, 56.0%)'으로, 계속해서 두 번째로 높은 유연성을 보이면

서 증가폭이 크지는 않지만 세 시점 동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계층4는 '상수준 무변화형 집단(92명, 6.8%)'으로, 계속해서 가장 높은 유연성을 보이면서 세 시점 동안 변화가 없는 특징이 있다.

확인된 응집성의 5개 잠재계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계층1은 '저수준 증가형 집단(40명, 3.0%)'으로, 계속해서 낮은 응집성의 경향성을 보이지만, 세 시점 동안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 특징이 있다. 계층2는 '중수준 증가형 집단(106명, 7.9%)'으로, 초기값은 두 번째로 낮은 점수, 두 번째와 세 번째 시점에서는 세 번째로 낮은 점수를 보이면서 세 시점 동안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며, 5점 척도의 3점 이상의 점수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계층3은 '감소형 집단(68명, 5.0%)'으로, 세 시점 동안 감소하는 추세가 있으며, 마지막 시점에서 가장 낮은 응집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계층4는 '상수준 증가형 집단(904명, 67.1%)'으로, 계속해서 두 번째로 높은 응집성을 보이면서 증가폭이 크지는 않지만 세 시점 동안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 특징이 있다. 계층5는 '최상수준 무변화형 집단(230명, 17.1%)'으로, 계속해서 가장 높은 응집성을 보이면서 세 시점 동안 변화가 없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잠재계층의 특징은 첫째, 유연성이 높은 잠재계층에 속한 집단은 응집성에서도 높은 잠재계층에 속하며, 유연성이 낮은 잠재계층에 속한 집단은 응집성에서도 낮은 잠재계층에 속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기능의 유연성과 응집성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유연성이 낮은 잠재계층과 응집성이 낮은 잠재계층 모두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는데, 증가폭은 응집성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상황적 요구에 적절하게 가족리더십, 역할 관계, 관계 규칙 등을 변화시키는 유연성의 경우 가족 내에서 자체적으로 향상되기는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셋째, 유연성의 잠재계층과 달리 응집성의 잠재계층의 경우 계속해서 감소하는 계층이 확인되었다. 정서적 결속력을 의미하는 응집성이 감소한다는 것은 가족 내에서 정서적 지지를 받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어머니가 지각한 유연성, 응집성의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령기에 해당하는 2015년(초1), 2016년(초2), 2017년(초3) 모두에서 자아존중감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성은 대체로 상수준 무변화형 집단이 저수준 증가형 집단, 중수준 증가형 집단보다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집성은 세 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최상수준

무변화형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가족기능과 자녀의 자아존중감 간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4, 15-16].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관계의 경험에서 얼마나 수용되고,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는지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데, 아동기의 사회적 관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부모이다[25]. 이에 가족 간 정서적 결속력이 높고,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적응하는 가족 환경을 경험하는 것은 긍정적 자기개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가족은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심리적 안녕감 및 만족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표상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어머니가 지각한 유연성, 응집성의 잠재계층에 따라 유아기에 해당하는 2013년(만 5세), 2014년(만 6세), 초등학령기에 해당하는 2015년(초1), 2017년(초3) 모두에서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연성은 저수준 증가형 집단, 중수준 증가형 집단이 중상수준 증가형 집단, 상수준 무변화형 집단보다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집성은 저수준 증가형 집단, 중수준 증가형 집단, 감소형 집단이 상수준 증가형 집단, 최상수준 무변화형 집단보다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가족기능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8, 19-21]. 응집성이 높은 가정의 자녀의 경우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경험해서 정서적 안정감 수준이 높아서 불안/우울, 위축 등과 같은 문제행동이 적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적응성이 높은 가정환경은 스트레스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과정을 모델링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와 같은 모델링 과정이 규칙위반, 공격행동 등과 같은 문제행동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아동 개인의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는 가족기능에 기초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8]. 아동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거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을 때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족기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점검하고, 이에 기초한 상담 및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동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에 기초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패널 데이터의 가



족기능 응답 자료가 세 시점만 존재하여 선형변화 모형에 기초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데이터가 더 축적된다면 선형변화 모형과 비선형변화 모형 중 어떤 모형이 가족기능의 변화 패턴을 더 잘 설명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기능의 변화궤적에 따른 잠재계층을 확인하였는데, 아버지가 지각한 가족기능의 변화궤적에 따른 잠재계층을 확인하고,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체계의 순환모형은 잘 기능하는 조화로운 가족의 특징을 응집성, 유연성, 의사소통의 세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의 한계 때문에 응집성, 유연성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의 변화궤적에 따른 잠재계층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5. 결론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기능의 변화궤적에 기초한 잠재계층은 유연성 4개 잠재계층(저수준 증가형, 중수준 증가형, 중상수준 증가형, 상수준 무변화형), 응집성 5개 잠재계층(저수준 증가형, 중수준 증가형, 감소형 집단, 상수준 증가형, 최상수준 무변화형)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유연성과 응집성의 잠재계층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유연성 수준이 낮은 계층은 응집성 수준도 낮은 경향성을 보이며, 유연성 수준이 높은 계층은 응집성 수준도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성과 응집성의 각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체로 가족의 유연성 및 응집성 수준이 계속해서 높은 잠재계층이 낮은 잠재계층보다 자녀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높고,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잘 기능하는 가족 시스템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시사한다.

## References

- [1] J. Shi, L. Wang, Y. Yao, N. Su, X. Zhao, F. Chen, "Family impacts on self-esteem in chinese college freshmen", *Frontiers in Psychology*, 8:279, 2017. DOI: <http://doi.org/10.3389/fpsy.2017.00279>
- [2] J. J. Park, "The effect of multicultural families functions on the social competence of multicultural childre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multicultural family mothers parental efficacy-",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5, No.6, pp.247-258, 2015.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5.15.06.247>
- [3] M. Matejevic, J. Todorovic, D. Jovanovic, "Patterns of family functioning and dimensions of parenting style",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Vol.141, pp.431-437, 2014. DOI: <https://doi.org/10.1016/j.sbspro.2014.05.075>
- [4] H. M. Yoon, N. M. Ryu, "Effects of family function,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problem behavior",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33, pp.215-236, 2007.
- [5] T. H. Kim, Y. J. Lee,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function on self-esteem in adolescent",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10, No.3, pp.173-193, 2005.
- [6] S. G. Kaplan, E. Mayfield Arnold, M. B. Irby, K. A. Boles, J. A. Skelton, "Family systems theory and obesity treatment: Applications for clinicians", *Infant, Child, & Adolescent Nutrition*, Vol.6, No.1, pp.24-29, 2014. DOI: <https://doi.org/10.1177/1941406413516001>
- [7] D. H. Olson, L. Waldvogel, M. Schlieff,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An update",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Vol.11, No.2, pp.199-211, 2019. DOI: <https://doi.org/10.1111/jftr.12331>
- [8] M. J. Heo, S. J. Chang,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3, No.3, pp.1211-1231, 2012. DOI: <https://doi.org/10.15703/kjc.13.3.201206.1211>
- [9] S. J. Lee, H. S. Lee, S. W. Lee, K. W. Sim, "The effect of peer relationship and family function on children's loneliness",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Vol.30, No.7, pp.533-538, 2009. DOI: <https://doi.org/10.4082/kjfm.2009.30.7.533>
- [10] J. S. Ko, "Mediating effect of adolescents' smart-phone addi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 and school adjustment resilienc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6, pp.140-151,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06.140>
- [11] K. H. Kim, "Developmental pathway from household poverty to depression/anxiety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family function and neighborhood environment-", *Locality and Globality: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39, No.3, pp.129-159, 2015. DOI: <https://doi.org/10.33071/ssricb.39.3.201512.129>
- [12] S. O. Cho,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problem behavior according to family interaction types",

-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23, No.6, pp.1071-1087, 2014.  
DOI: <https://doi.org/10.5934/kihe.2014.23.6.1071>
- [13] C. H. Lee, "The effects of preschool children's creativity on family function and motivation of preschool children", *The Journal of Creativity Education*, Vol.15, No.1, pp.83-95, 2015.
- [14] H. J. Lim, "A study on associations of family interaction, home environment, and children's psychological variables with the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7, No.6, pp.269-291, 2017.  
DOI: <https://doi.org/10.18023/kiece.2017.37.6.012>
- [15] A. Rezaei-Dehaghani, S. Paki, M. Keshvari,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ing and self-esteem i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of Isfahan, Iran, in 2013-2014", *Iranian Journal Nursing and Midwifery Research*, Vol.20, No.3, pp.371-377, 2015.
- [16] X. Shi, J. Wang, H. Zou, "Family functioning and internet addiction among Chinese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s of self-esteem and lonelines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76, pp.201-210, 2017.  
DOI: <http://dx.doi.org/10.1016/j.chb.2017.07.028>
- [17] L. Guo, L. Tian, E. S. Huebner, "Family dysfunction and anxiety in adolescents: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self-esteem and perceived school stres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69, pp.16-27, 2018.  
DOI: <https://doi.org/10.1016/j.jsp.2018.04.002>
- [18] G. F. Kawash, L. Kozeluk, "Self-esteem in early adolescence as a function of position within Olson's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18, pp.189-196, 1990.
- [19] J. Y. Rhee, "Research on the influence of mothers' enculturation stress and parental stress on children's maladjustment in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a control effect of family function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17, No.2, pp.105-125, 2012.
- [20] Y. H. Choi, E. H. Ha,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family interaction, parent-child interaction and behavior problems: The mediating effects of media device addiction",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Vol.17, No.2, pp.1-18, 2019.  
DOI: <https://doi.org/10.35639/daehan.2019.17.2.1>
- [21] E. J. Choi, C. K. Kim, "Mothers' depression, happiness, family function, and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Structural relationships in different parental drinking context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22, No.2, pp.215-237, 2018.  
DOI: <http://doi.org/10.21459/kccr.2018.22.2.215>
- [22] <http://panel.kicce.re.kr>
- [23] T. Asparouhov, B. Muthén,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21, No.3, pp.329-341, 2014.  
DOI: <https://doi.org/10.1080/10705511.2014.915181>
- [24] S. H. Baek, H. W. Chung,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the changing community spirit as determined by means of growth mixture modeling", *Studies on Korean Youth*, Vol.28, No.1, pp.151-182, 2017.  
DOI: <http://dx.doi.org/10.14816/sky.2017.28.1.151>
- [25] U. Orth, "The family environment in early childhood has a long-term effect on self-esteem: A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age 27 yea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114, No.4, pp.637-655, 2018.  
DOI: <http://dx.doi.org/10.1037/pspp0000143>

연 은 모(Eun Mo Yeon)

[정회원]



- 2007년 5월 : 버지니아 주립대 (Univ. of Virginia) 국제관계학 학사
- 2009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방법 석사)
- 2014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진로상담, 실수기반학습, 학습동기

최 효 식(Hyo-Sik Choi)

[정회원]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심리검사, 학습전략, 부모-자녀 관계